정책부재속에 무너지는 지방 상아탑

◇ 글싣는 순서 ◇

1. 사립대학의 재정난
2. 대학자율화는 요원한 꿈인가
3. 학과재열화
4. 대학평가인정제의 허와 실
5. 산학협동
6. 지방캠퍼스정책 성공했는가

〈完〉지방캠퍼스 정책 성공했는가

오늘의 대학

지방캠퍼스라는 어휘의 벌주에는 말 그대로 지방에만 위치해 있는 대학과 소위 분교(?)라고 사회에서 일컬어 지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을 합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개념인 서울캠퍼스라는 말은 그다지 대중적이지 못한 생소한 어휘로써,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통틀어 서울캠퍼스라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로 지역간의 차이만을 두고 형식적, 행정적인 위치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은 서로간의 차이가 확연할 만큼 크다.

입시의 계절만 되면 모든 매체들이 각 대학들의 지원율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수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단어만의 차이가 아닌 커다란 인식의 괴리로서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정영선(정경대 부여 2)군은 "언뜻에 서울캠퍼스가 메인캠퍼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수 없어 우쭐해질 때도 있다"라고 밝혔으며 우리학교 외국어대학에 다니고 있는 나현우(영문 2)군은 "성균관대학의 경우 인문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통상 표현되지만 우리학교에 대한 언론의 표현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정영선(정경대 부여 2)군은 "언뜻에 서울캠퍼스가 메인캠퍼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수 없어 우쭐해질 때도 있다"라고 밝혔으며 우리학교 외국어대학에 다니고 있는 나현우(영문 2)군은 "성균관대학의 경우 인문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통상 표현되지만 우리학교에 대한 언론의 표현이 서울캠퍼스라는 어휘의 벌주에는 말 그대로 지방에만 위치해 있는 대학과 소위 분교(?)라고 사회에서 일컬어 지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을 합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개념인 서울캠퍼스라는 말은 그다지 대중적이지 못한 생소한 어휘로써,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통틀어 서울캠퍼스라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로 지역간의 차이만을 두고 형식적, 행정적인 위치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은 서로간의 차이가 확연할 만큼 크다.

입시의 계절만 되면 모든 매체들이 각 대학들의 지원율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수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단어만의 차이가 아닌 커다란 인식적인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서울은 본교, 수원은 분교라고 나누는 사회의 도식적이고 그릇된 관행과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양 또는 서울문화 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의 중복학과가 있으며 지난 90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수원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와 궁극적으로는 한 학과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등으로 인해 현재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방치되어 지고 있다.(표 참조)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쉽게 교정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일각에서는 대안으로서 지역과 학교실정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문화적인 소외감까지 겹쳐 공통된 피해의식으로까지 형성되어지고 있다. 물론 졸업생의 경우도 본교라는 사회의 편협된 시각을 한번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결을 위한 모델

이러한 사회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의 경우와 같은 확실한 캠퍼스 특성화 정책을 정리한 필요가 있다. 성대는 현재 서울에 인문과학캠퍼스를 두고 자연계열의 학과는 모두 수원으로 이전한 이원화 체계로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성대 자연과학캠퍼스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여타 다른 지방캠퍼스와는 판이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캠퍼스 중 포항공대의 경우 포항시에서 약간 벗어난 외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대 학생수 비 1 : 10, 학생전체에 대한 장학금 및 기숙사 수혜등 최상의 교육조건과 완벽하게 갖추어진 전산망을 기반으로 서울대와 비슷한 사회적 평가를 확보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비교적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캠퍼스들은 나름대로 대학의 특성과 전략부분을 확대시킨 결과, 다른 지방대학과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성공한 경우인 것이다. 더불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전철 유치 등의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를 낳은 경우라면 한양대 안산캠퍼스를 꼽을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캠퍼스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우리학교 지역문제연구소는 지난 10월 14일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수도권일대의 지방캠퍼스들이 나아갈 한 방향을 제시하여 눈길을 끈다.

조창현 부총장, 이석우 경기도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세미나에선 도시·지역 개발, 지역 정보화, 지역사회문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으며 대학 담당자들과 지역 행정 관계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역문제연구소소장인 이계탁(사회대 행정)교수는 "교육시장개방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서울소재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환경을 지닌 지방캠퍼스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당지역 행정부와 대학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의사 개진과 논의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학교의 경우 수원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학의 의견이 어느정도 작용하는지가 대학발전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되어 있었던 기존의 연구소와는 달리 사회대, 자연대, 공과대, 산업대 등 4개 단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지역문제연구소는 학제(Interdesciplinary)간의 협동을 통한 지역간의 종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등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이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3년 2월 대학 지방캠퍼스 계획지원정책과 94년 10월 지방대 주변대학촌 개발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 문화행사의 지방캠퍼스 분산 실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각 대학과 지역 관계부서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은 세워져 있지만 교육부의 경우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대학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사안일 경우는 해당 지역 대학과 지역행정부의 논의를 거쳐 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캠퍼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변지역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에 기여하는 대학의 모습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주변에 산재한 산업체, 96년에 건설될 영통 아파트 단지 등을 고려한 장단기 발전계획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포함해 상명여대, 호서대 등 8개 대학이 분포되어 있는 천안의 경우 학교측과 시 당국이 논의하여 천안을 대학도시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라 한다.

물론 경부고속전철의 첫 기착지라는 호재도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측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으면 헛된 공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사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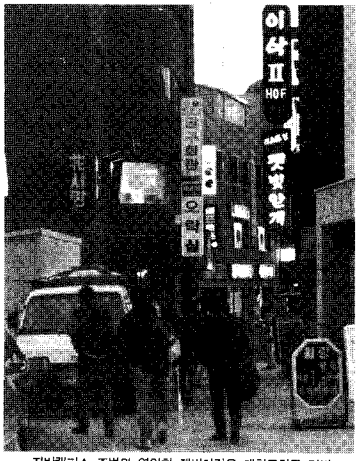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경우도 수원캠퍼스,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등 영통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분당선 전철개통으로 교통문제도 조금씩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교육 도시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측일까.

이를 위해선 지역 주민과 경기도 행정당사자, 학교와 학생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중앙 행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측의 노력이 더욱더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취재반
오세윤 논설운영위원
한승오 기자

〈표〉 수도권 인근 지방캠퍼스 중복학과 현황

	지방캠퍼스 위치	중 복 학 과	비 고
경 희 대 학 교	수원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경영계열(경영,무역,회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체육학과	9개학과
건 국 대 학 교	충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가정관리학과, 축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경영학과	12개학과
단 국 대 학 교	천안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화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15개학과
중 앙 대 학 교	안성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토목공학과	6개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이태리어과, 포루투칼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인도어과, 부영학과, 정세학과	15개학과
성 균 관 대 학 교	수원	인문계-서울, 자연계-수원	없음



지방캠퍼스 주변의 열악한 제반여건은 대학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보다 자칫 사치와 향락에 빠뜨릴 수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학교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학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대학시리즈를 연재하였다. 충분한 대안제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나름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캠퍼스 정책에 대한 객관적 고찰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살펴보며 시리즈를 끝맺고자 한다.

무엇한 대안없이 방치되어지 온 지방캠퍼스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의 유기적인 조화라는 명제 아래 지방캠퍼스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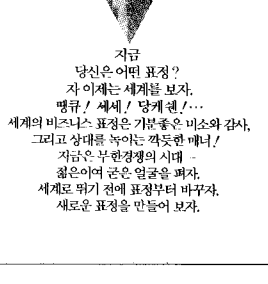
〈편집자〉

지방교육 활성화 못한채 이질감 심화
지역과 유기적 관계 모색만이 해결책

럭키금성

젊은이여, 시대의 흐름을 알자!

"표정을 바꾸자"



지금
당신은 어떤 표정?
자 이제는 세계를 보자.
땡큐! 세세! 당케쉔!…
세계의 비즈니스 표정은 가볼좋은 미소와 감사,
그리고 상대를 녹이는 깍듯한 매너!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 -
젊은이여 굳은 얼굴을 펴자.
세계로 뛰기 전에 표정부터 바꾸자.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 보자.

기술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미래의 기술은 산업용 전기,전자기술—
금성산전이 앞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술에는 냉장고, TV 등 가전기기를 만드는 家電분야와 FA(공장자동화), 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産電분야가 있습니다.
지금,세계의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産電분야에 집중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
産電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젊음을 투자할 만한 기술분야입니다.

■ 산업자동화 분야
• 로봇 • PLC • CNC • 인버터 • 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자동화시스템 • 교통관제시스템
• 선박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 서비스설비분야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주차설비 • 차량관리기기
• 자동판매기 • 전동공구 등

■ 전기·전자 분야
• 초고압설비 • 배전반설비 • 고압기기 • 변전설비
• 계기계측기기 • 광반도체 등

■ 환경에너지 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 • 자외선살균시스템 • 측열기기
• 태양열온수기 등 대체에너지

金星産電
• 金星産電(株) • 金星計電(株)
• 金星機電(株) • 金星아니텍(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직원 : 도원타워) 대표전화 (02)7 6/7 1114